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말며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라.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1월 9일)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1천년 역사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 12월 16일 확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 인류무형유산되기까지

2012년 4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
2017년 등재신청대상 선정
2018년 3월 등재신청서 및 관련자료 유네스코 제출
2019년 9월 등재신청서 수정사항 제출
2020년 3월 유네스코 평가기구(전문가) 심사 시작
2020년 11월 유네스코 평가기구 등재권고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결정

연등회 보편적 가치 인정 '쾌거'
창의성 · 문화 다양성 높게 평가
원행 스님 "보존 · 전승에 최선"
문화재청 "지원사업 적극 추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문화행사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확정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는 12월 16일 온라인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한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등재를 확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등재 확정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이 현장을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마련된 부스에서 함께 시청했다.

앞서 무형유산위원회 심사기구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연등회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평가해 사실상 등재가 확실시 됐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까지는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18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간 등재를 위해 연등회보존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등재신청 양식이 변경돼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함께 영상 회의를 지켜보던 원행 스님과 정재숙 청장은 연등회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등재 직후 원행 스님과 정재숙 청장은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연등회 보존과 발전에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숙 청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행사 연등회가 3년여의 긴 여정 끝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문화재청은 등재를 계기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류무형유산 지원 사업을 펼쳐 연등회 전승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1000년 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연등회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廻向) 등으로 이뤄졌으며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오늘날에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 연계 연등회 행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연등회가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 ·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박상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봉행되는 연등회는 종교문화유산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문화유산이 됐다"면서 "연등회는 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등을 들고 행렬하는 화려한 축제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절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다. 민간의 보존회와 정부가 협력해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2월 12일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염원하는 '2020 서울붓다페스티벌 &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연결한 108개 사찰 불자들에게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날마다좋은날

코로나19 극복 온텍트로 '염원'

날마다좋은날 12월 12일 전국불자 금강경 독송 진행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주최한 2020서울붓다페스티벌 &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12월 12일 사상 최초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 첫 전국 실시간 연결 방식으로 서울 조계사 대웅전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을 중심으로 전국 108곳서 진행됐다. 사전 동참 신청을 받아 교구본사는 물론 포교사단의 각 지역단, 해외이주민 법당, 인청공항 광제사, 올림픽공원 법당, 경주 동국대 정각원 등 전국 사찰과 단체, 개인이 ZOOM 접속을 통해 1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온택트 방식으로 소수 인원만 참여했지만 행사는 장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개막선언과 동시에 무대뒤로 108개 분할화면이 펼쳐지며 전국 불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 △주윤식 회장의 환영사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치사 △이기흥 명예회장의 격려사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의 축하영상이 진행됐다.

주윤식 회장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불자님들과 온택트 야단법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이 금강경 합송은 한반도를 불국토로 만들고 더 나아가 코로나 종식을 위한 우리 들의 간절한 염원이 전세계에 전달 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 以生其心), 즉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눔을 통해 자리이타(自利利他)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며 8년째 진행해온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격려하고 더불어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 분황사 온라인 착공식 연다

조계종, 12월 29일 '줌' 활용 중계… 2022년 대웅전 완공 계획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결집불사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위원회(위원장 금곡)는 12월 29일 오후 1시30분 인도 부다가야 현지와 온라인으로 분황사 건립 착공식과 기공법회를 봉행한다. 기공법회는 온라인 화상시스템인 'ZOOM'을 활용해 이원생중계될 예정이다.

현재 기공법회를 위해 조계종과 업무협약한 물라상가 법인 대표 붓다팔라 스님을 비롯한 9명이 지난 11월 27일 인도 현지로 들어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분황사 기공법회는 올해 3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인도의 우기가 시작돼 더 이상 공기를 늦출 수 없어 기공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는 부처님 정각(正覺) 성지에 한국 사찰이 낙후돼 성지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 한국 전통양식의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원행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원행 스님의 발원에 부산의 설매 · 연취 두 화주자가 선뜻 거금 50억 원을 쾌척했고, 백천문화재단에서 진료소 건립 기금을 기부함에 따라 불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사찰 분황사의 조성 위치는 인도 물라상가의 부다가야 보유부지로 건축면적은 총 1,302.88㎡, 연면적은 총 1,741.56㎡다. 부지에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 3동이 들어선다. 대표 건물인 대웅전은 단층으로 면적 433.84㎡, 연면적 262.26㎡으로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한국 사찰 건축물 중 보기 드문 회랑식 법당으로 설계한 것은 태양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강하고 고온다습한 인도 기후와 주변환경을 고려해 이뤄졌다.

숙소 건물은 2층으로 지어지며 고온의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지붕 구조로 건립된다. 규모는 74.93㎡, 연면적 964.45㎡이며, 1인실 15개실 · 2인실 6개실로 구성된다.

부다가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공간인 보건소는 진료대기를 위한 넓은 로비와 복도를 중심으로 유동적 진료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설계의 주안점을 뒀다. 규모는 연면적 514.85㎡으로 1층에는 진료소와 환자 대기를 위한 로비가, 2층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2인 숙소 5개실이 들어선다.

한편, 조계종은 2022년 4월까지 분황사 대웅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숙소와 지역 보건소 건립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연燃등燈회會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환영합니다

연등회보존위원회
보존위원장 원 행 圓行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하는 축하메세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에 힘입어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일시 2020. 12. 17(목) ~ 2020. 12. 31(목)

참여방법

- 각종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축하 메시지, 사진 및 해시태그 작성
  (#연등회 #유네스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연등회 #연등회파이팅 등)
- 성함, 연락처, 배송지 주소, 게시글 주소(URL), 작성한 게시글 캡쳐사진을 첨부하여 연등회 메일(LLF@buddhism.or.kr)로 발송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www.llf.or.kr